KMO와 Bartlett

# 1. KMO (Kaiser-Meyer-Olkin)

변수들 간의 편상관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수의 숫자와 케이스의 숫자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표본 적합도를 의미한다. KMO 값은 높을수록 좋으나 일반적으로 .5보다 크다면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. 간혹 그 값이 .6이상이면 되다거나 .8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, 연구문제에 따라 값은 달라 질 수 있다. 보통의 사회과학 연구문제는 .5이상의 수준을 요구한다.

# 2.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(Bartlett's Test of Sphericity)

요인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상관계수의 행렬이 대각행렬이면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. Bartlett 값에서 p<.05이면 대각행렬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이다.

# 요약

KMO나 Bartlett 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요인분석을 진행할 때 KOM>.5 Bartlett의 p<.5 , Bartlett의 p<.05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자